

2024. 8. 9.(금) 석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4년 8월 9일 오전 6: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과장

한 정 훈

2133-5530

소상공인지원팀장

김 명 선

2133-5532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4쪽

관련 누리집

www.seoulshinbo.co.kr

서울시 중저신용 위기 소상공인 전용 비대면 '신속드림자금' 1000억원 출시

- 신용평점 839점 이하, 신보·은행 방문없이 모바일 앱 '비대면 방식'... 소요기간 최대 7일 단축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자차액 1.8% 보전·보증료 50% 市 지원, 1년거치·4년 균분
- 9일(금) 市 인터넷전문은행·서울신보 업무협약 체결... 은행3사 내년까지 80억원 신보에 출연
- 오 시장, “중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 지원해 민생경제 안정화”

서울시가 고금리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1,000억 원('24년 500억원, '25년 500억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을 출시한다. 인터넷전문은행과 협약 맺어 모바일 앱으로 용자 신청부터 실행까지 가능하며 용자신청부터 실행까지 4일 내외로 소요되어 대면 용자신청보다 최대 7일까지 소요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신속드림자금'은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중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전용 상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은행 방문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핵심이다.

- 이를 위해 서울시는 9일(금) 오전 9시 30분,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주)카카오뱅크, (주)케이뱅크, 토스뱅크(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서울시 소상공인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윤호영 (주)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이사,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참석했다.

- 서울시는 자금지원 계획수립과 예산을 확보하고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비대면 금융시스템 구축 및 용자 상품 마련을 통한 자금지원 수행,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자금지원 안내와 비대면 용자심사·결정 등을 한다.

-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 3사는 '25년까지 총 80억 원(카카오뱅크 40억 원, 케이뱅크 및 토스뱅크 각 20억 원)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 올해 공급하는 500억 원 규모의 ‘신속드림자금’은 이자 차액 1.8% 지원,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용자 가능하다. 기존 소상공인이 전액 부담했던 보증료의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나머지 500억 원도 ‘25년에 용자 지원 예정이다

- 한편 서울시는 현재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24년 총 1조 8,65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지원을 시행 중이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직접용자금 2,150억 원과 시중은행협력자금 1조

6,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 특히 고금리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희망동행자금’을 4,000억원 규모로 신설하였으며,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 원의 대출을 대환하는 상품으로 이자차액보전(2.0%), 중도상환수수료(1.4%) 및 보증료(1%) 면제 지원을 제공한다.

- ‘신속드림자금’은 인터넷전문은행 3사의 모바일 앱을 통해 순차적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지원 조건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중소기업육성지원계획 공고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인터넷은행별 신청은 ▲(주)카카오뱅크 8월 9일(금)부터 ▲케이뱅크 9월 넷째주 부터 ▲토스뱅크 10월 둘째주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 개시 예정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대면 방식의 ‘신속드림자금’ 출시로 즉시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문턱을 낮추고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민생경제 안정화를 앞당기겠다”며 “아울러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총 7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긴급 투입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 피해 구제에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1.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9일(금)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윤호영 (주)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오세훈 서울시장,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이사,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진2.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9일(금)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이사, 윤호영 (주)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오세훈 서울시장, 최우형 케이뱅크 대표이사, 주철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사진3.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9일(금)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4.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9일(금) 오전 시청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시 신속드림자금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